

# d-lab.1s starter 런칭 쇼 개최



아그파그룹의 소비자영상사업부라는 사업부서에서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하며 토털 디지털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온 (주)아그파포토(대표·송기욱)가 적은 투자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인 'd-lab.1s starter'를 선보였다. 초기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존 아그파 미니랩 장비가 가진 장점을 그대로 적용한 신제품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올해 미니랩 시장 판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했다.



○○○ 취재 | 박지연 기자 |

2004년 11월 아그파그룹의 소비자영상사업부라는 하나의 사업부서에서 신생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과 함께 토털 디지털 솔루션 사업에 주력해온 아그파포토가 투자비용을 줄이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아그파포토는 지난 4월 21일 오후 3시 신라호텔 루비룸에서 사진 스튜디오 운영자 및 관련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d-lab.1s starter' 런칭쇼를 개최했다.

“아그파의 신제품 'd-lab.1s starter' 런칭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말을 연 아그파포토의 송기욱 대표는 “새롭게 선보이는 'd-lab.1s starter'는 기존의 아그파 미니랩 장비들의 뛰어난 성능을 모두 갖춘 가장 경제적인 모델로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투자가 망설여지는 시기에 최적의 솔루션이라 자부한다”고 말하고 “아그파포토는 기존 아그파그룹에서 사진시장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회사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앞으로 장비와 소모품을 파는 단순 공급업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튜디오 운영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지원해주는 컨설턴트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 “ 사진 사업 컨설턴트로서 거듭날 터 ”

송기욱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영업팀의 유정엽 차장의 'd-lab.1s starter 소개'와 '수익 창출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소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고 개별 제품 시연의 시간을 가졌다.

영업팀의 유정엽 차장은 제품소개와 관련하여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d-lab.1s starter'는 매우 콤팩트한 사이즈에 동급 장비 가운데 최저가 장비로서 적은 비용을 투자해 사



▶아그파포토의 송기욱 대표는 “아그파포토는 아직 작지만 현실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하여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그파포토는 지난 4월 21일 오후 3시 신라호텔 루비룸에서 사진 스튜디오 운영자 및 관련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d-lab.1s starter’ 런칭쇼를 개최했다.

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미니랩은 장비 가격이 부담이지만 유지 보수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신제품은 아그파 ‘d-lab1’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는 MDDM광원을 그대로 채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시간당 550장을 출력하는 ‘d-lab.1s starter’는 아그파 미니랩 장비중 가장 낮은 Performance class1에 속하는 장비지만 초기에 적은 비용을 투자해 성공적인 사업과정을 거쳐 이후 더 크고 빠른 속도의 장비를 추가 구입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만을 간단히 교체하여 시간당 900장 출력까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d-lab.1s starter’는 최대 8×12인치 사이즈 출력에 380dpi의 해상도를 지원하며, 아그파포토의 d-TFS 기술에 의한 자동인화 프로세스와 간편한 작동이 가능하다.

유정엽 차장은 디지털 미니랩 장비에 투자와 관련한 제안 사항도 언급했는데 “초기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고품질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날로그 및 디지털이 동시 작업 등을 통해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여 온라인 인화 주문 솔루션 및 다양한 출력물과 새로운 사업 아이템 등 부가가치 사업으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아그파에서 새롭게 선보인 ‘d-lab.1s starter’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투자 비용은 최저, 효율은 최고 - ‘d-lab.1s starter’

지난 2002년부터 디지털 인화장비의 국내 출시를 시작한 아그파포토의 미니랩중 중심 디지털장비가 된 것은 2004년 초 출시된 d-lab.1 allrounder이다. 당시 이 제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름 현상기가 본체에 장착된 일체형 모델로서 필름 현상기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이 최소의 공간에 설치하여 단지 몇 번의 버튼 누름 동작만으로 필름 현상부터 인화 및 분류까지 모든 작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이후 포토키나에서 아그파포토는 이 장비 모델을 확장시켜 필름 프로세서가 없는 ‘d-lab.1 basic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이어 올해 PMA에서 인화 사업 시작을 위한 이상적인 디지털 장비인 d-lab.1s starter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유정엽 차장은 “아그파포토의 제품군은 고객들이 사진인화를 원할 경우 직접 주문하여 인화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완벽한 디지털 미니랩을 완성할 수 있다”며, “그 해결책이 바로 디지털 사진 인화의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키오스크 솔루션으로서 특히 종합현상소 시장에서 아그파포토의 솔루션은 성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역시 디지털 사진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에서는 온라인 인화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아그파넷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